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행사 스케치



조용덕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장
choyong@kwater.or.kr

아시아지역 물 문제를 논의하는 첫 번째 장인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이 9.20(수)부터 9.23(토)까지 경주시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회장 이학수, K-water사장), 경주시, K-water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주도의 세계적인 행사로 물관련 글로벌 아젠다를 선점하고, 물산업 육성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 3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이다. 'Asia Solutions for Water'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정부·국제기구·기관·학계·NGO등 70여개국

15,000명(외국이 1,000 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대한민국국제물주간 2017”과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금번 아시아국제물주간에서는 “아시아에서 세계로 선언문 발표(고위급 패널)”, 아시아 물이슈(25개 세션), 워터프로젝트 포럼(다자간개발은행, 국가별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아시아에서 세계로 선언문 발표의 경우 아시아에서 세계로(Asia to World Statement)를 주제로 물 관련 아시아 중앙정부, 공공, 지자체, 수변도시 및 국제기구 등 50여개 국가 및 기관대표들이 참여하여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택된 선언문에 대하여 기관별로 시행한 우수사례와 앞으로 선언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참여 기관들 간에 공유하였다. 특히, 선언문은 AIWW의 주요 프로그램인 아시아물이슈(Asia Water Issues), 물프로젝트포럼(Water Project Forum) 등에서 논의되는 주요 물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실행 될 수 있는 동력을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지사

AWC 회장 K-water CEO

대구시장

그림 1. AIWW & KWW 개최사 및 환영사

부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최종 의사 결정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아시아에서 세계로 선언문”의 프로그램명은 아시아 국가들의 물 문제를 해결을 통해, 심각한 물 문제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시아 물이슈는 AIWW(아시아국제물주간)의 메인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물 전문가가 AIWW에 참여하여 물과 기후변화, 식수와 위생,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수생태계 및 수변 등 5개의 주제로 아시아의 주요 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아시아 물이슈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해외정부, 국제기구, 연구소 등 다양한 물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물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시아 물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국제적인 이슈를 제기하는데 기여하였다.

물 프로젝트 포럼(Water Project Forum)에서는 다자간개발은행 및 국가별 세션을 개최하여 한국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다자간개발은행 세션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남미투자은행 등이 참여하여 투자 의사결정기준, 절차 등 MDB의 업무 프로세스 정보 및 MDB의 물 관련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국가별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물문제 현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관련 프로젝트 현황 및 발주계획 등이 설명되어, 국내외 물관련 기업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나 이와 병행하여 청중들과 MDB 및 국외 발주청들 간의 일대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K-water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관련 아젠다 확산과 동시에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였고, 녹조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물산업플랫폼센터 론칭 특별세션’ 및 ‘녹조관리 특별세션’ 등을 진행하였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지역 물 이슈를 발굴하고 물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행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

표 2. 아시아국제물주간 대주제 및 세부주제 코디네이터

대주제 (챔피언)	세부주제 (코디네이터)
물과 기후변화 Water and Climate change (중국 수리수전과학원, IWHR)	1-1. AIT, CCAW, USACE, 1-2. IWHR, 1-3. TMSI, 1-4. IWI, PNU, 1-5. ARRN
식수와 위생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2-1. IWRA, K-water, 2-2. UNESCO, 2-3. MWA, MWSS, 2-4. Eco Star RG, 2-5. K-water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태국 왕립관개청, RID)	3-1. THAICID, 3-2 Chulalongkorn U., @qua, Kyoto U., K-water, 3-3. KNCOLD, K-water, 3-4. Mahidol U., Kasetsart U., 3-5. RID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Water-Energy-Food Nexus (유엔식량기구, UNFAO)	4-1. KRC, 4-2. FAO, ICOLD, 4-3. K-water, 4-4. AWP, 4-5. GWP, AWP
수생태계 및 수변 Water for Ecosystems and Waterfronts (글로벌 물,환경,건강연구소, GIWEH)	5-1. IUCN, 5-2. K-water, 5-3. KEI, 5-4. UNEP, 5-5. GIWEH

다. 폐회식에서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개최지가 인도네시아로 결정되었으며, 경주시장이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장관에게 AIWW 깃발 전달식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는 자체행사로서 2017.9.20.(수) 14시, 경주에서 아시아 물문제 해결에 협력하기 위해 제5차 이사회 및 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물위원회는 대한민국(K-water) 주도로 2016년 3월 설립된 국제 물기구로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이슈 리딩 및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26개국의 12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정책이슈를 주도하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금번 AIWW는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주요장면



그림 2. AWC 5차 이사회 장면



그림 3. 환경부장관 K-water, AWC 부스 방문 및 CEO와 환담



그림 4. 폐회사 및 2차 AIWW 개최지 깃발 전달